시내버스-트럭 4중 충돌… 4명 사망

어제 제주대 입구 사거리서
화물트럭이 버스 들이받아
승객 등 40여명은 중경상
버스 2대에 60여명 탑승
버스 1대는 도로옆 밭 전복

버스 2대와 4.5t 트럭, 1t 트럭 등이 잇따라 부딪히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현장. 사진=독자 제공

제주에서 시내버스와 트럭 등 4대가 충돌해 4명이 숨지고 4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6일 오후 5시59분쯤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시내버스 2대와 4.5t 트럭 1대, 1t 트럭 1대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1대가 인도를 덮친 뒤 밭으로 추락했고 4.5t 트럭과 1t 트럭이 도로 위에 전도됐다. 인명피해는 이날 오후 8시30분 현재 심정지 4명, 중상 3명, 경상 36명(이하 버스 승객)으로 확인됐으며, 1t 트럭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사고당시 버스 2대에는 각 3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크레인이 동원돼 추락한 버스와 전도된 트럭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락한 버스 주변으로 소방대원들이 튕겨나간 승객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산천단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내려오던 4.5t 트럭이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 2대를 잇따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사고로 인해 사상자 후송 등 사고현장 수습으로 퇴근길 극심한 차량 정체현상이 빚어졌다.

송은범·강민성기자

제주시 읍면동 건축물 준공검사 허술

도감사위 감사결과 공개
"100건 하자검사 미실시"

제주시 일부 읍·면·동 주민센터가 준공 검사를 허술히 하고 공사 대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감사는 조천읍, 한경면, 삼도2동, 화북동, 삼양동, 연동 등 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2개 관서가 2018년 9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준공한 시설물 100건에 대해 정기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40건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가 하자담보 책임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 한 해 2차례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담보 책임기간이 만료하기 14일 이전에는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

이런 절차들이 누락되면 담보 책임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선 계약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 모 관서는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도서에 나온 거푸집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공업체에 설치비 785만원을 포함한 준공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해당 관서를 포함한 4개 관서가 6건 시설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14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시는 보조금 환수 처분 권한 없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행정소송
제주시 1심 이어 항소심도 패소

제주시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목적 외 사용한 사업자에게 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서 1심과 동일하게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로부터 '2015년도 말산업 육성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 약 9454만원(국비 50%·지방비 50%)을 수령, 169㎡ 규모 창고에 승마시설을 건축했다. 이후 제주시는 2018년 11월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창고가 사무실 및 강의실 용도로 목적 외 사용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보조금 6861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는 지난해 11월 10일 "창고를 목적 외로 사용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제주시의 입장은 타당하다"면서도 "지방비 보조금의 경우는 지방재정법과 제주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해야 한다. 하지만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그 행위에 대한 제재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제주시의 처분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왕정옥 부장판사는 "보조금법 개정으로 관련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되기는 했지만, 이를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에 재위임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관광객 또 코로나 확진

제주에 가족여행을 온 일행 가운데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63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637번 확진자는 지난 1일 코로나19에 확진된 630번의 가족이다.

630번은 제주 입도 과정에서 발열 증세를 보여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이후 양성으로 판정됐다. 당시 630번은 637번을 포함한 가족 5명과 함께 지난 1일 제주에 왔다.

637번은 최초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637번은 모 시설에서 격리돼 머무는 중 지난 5일부터 두통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이튿날 확진됐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10명 중 9명이 수도권 등 타 지역을 방문했거나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감염이 이어지면서 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덜컹"… 도로 맨홀에 운전자들 '화들짝'

움푹 파이거나 솟아오른 맨홀 도로 곳곳서 확인
차량들 맨홀 피해 곡예운전… "신속한 보수 필요"

도로위 맨홀 중 움푹 파이거나 솟아오른 것들이 적지 않아 운전자들의 불편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 사진

제주대학교에 차량으로 통학하고 있는 A(26)씨는 6일 롯데시네마 아라점 인근 사거리에서 제주여고 방향으로 우회전하다 갑작스런 충격으로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맨홀 주변 도로가 깊숙히 파여 있었던 것. 그는 여러번 호되게 당한 뒤 우회전할때 차량을 크게 회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충격이 커서 차량에 내려 살펴보니 맨홀 부근 도로가 파여 있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크게 턴하고 있다. 1차로에 차량들이 있을 땐 어쩔 수 없이 맨홀을 밟을 수밖에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맨홀 주변에 도로가 굉장히 움푹 파여 있었다. 15분 정도 지켜본 결과 제주여고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 대부분이 맨홀을 밟고 지나갔다. 충격으로 인한 차량 흔들림도 목격됐다. 차량이 맨홀 부분을 지나면서 발생하는 소리도 크게 들렸다.

제주시내 연북로, 연삼로, 봉개동, 영평동 인근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움푹 파인 맨홀들이 다수 발견됐다. 운전자들은 맨홀들을 피하기 위해 차로를 살짝 넘나들기도 했다. 이에 운전자들은 충격에 대한 피로감 호소와 함께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삼로로 출퇴근한다는 B(55)씨는 "현재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데, 맨홀을 넘을 때 허리에 충격이 가해져 아플 때가 종종 있다"며 "꽤 오랫동안 맨홀이 방치돼 있던 것으로 안다. 안전을 위해 행정에서 빨리 도로 보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건설과 관계자는 "맨홀 부근에서 파임 등이 발생하면 아스콘을 이용해 메우는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며 "맨홀 순찰을 강화해 신속한 보수작업에 나설 예정으로, 운전 중 맨홀 파임 등을 발견하면 제주시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제주시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예산은 17억이 배정됐다. 강민성기자

"제2공항 백지화 하고 투기의혹 전면 수사하라"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제2공항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를 비롯한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6일 '제2공항 반대 도민결정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원희룡 도지사 퇴진과 제2공항 투기 전면 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도민결정 거부한 원희룡은 퇴진하라!', '도민은 결정했다! 제2공항 철회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제2공항 백지화를 주장했다.

이날 황태정 천주교구 생태위원장은 "제주도의 생태 수용이 가능한지, 도민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지, 환경영향 등을 다 점검한 뒤에 공항 건설 여부를 논의해야지 먼저 결정하고 요식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민성기자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제주대 와이덱스 보청기 CGV 화북 광양 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그랜드 보청기
2021히트브랜드대상 봄맞이 특가할인!
*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2021 HBTHBA 히트브랜드대상1위 THE HIT BRAND AWARD 1ST PLACE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춘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렴수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 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25-9001